

광주 고교생들 NO 불매운동 확산

BOYCOTT JAPAN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 조치에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개학 후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친일 교육잔재 청산에 속도를 내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은 지역 교육계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대적인 맞 대응을 펼치는 분위기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 전체 고등학교 학생회 모임인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최근 올해 2차 정기회를 열고 학교 차원의 불매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정기회는 애초 급식 영양기준과 식기류 위생관리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국내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자 참여 학생의원

'고등학교 학생의회' 학교 차원 불매운동 동참·사례 발표 올해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친일 교육잔재 청산 앞장

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학생의회 부의장인 윤시우(광덕고 3년)군은 지난달 17일 광덕고의 불매운동 선언식을 소개하며 동참을 호소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제안이 거론되면서 동참 분위기가 확산했다.

앞서 광주 광덕고 학생들이 불매운동 선언식을 열고 일본 학용품 버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광주제일고 학생회가 지난달 23일 방학식에서 불매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전남공업고와 광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서진여고, 상일

여고 등 학생회도 개학 이후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학생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광주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장단도 지난 5일 학생 실험 실습 기자재, 비품, 재료에 일본제품을 쓰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광주지역 교육계에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추세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행위는 착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지 명백한 경제 침략이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는 일본 정부의 역사오식에 큰 실망감을 느낀

다"고 지적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지역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계교교육 수업자료 개발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또 9월 개학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현장 계교수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시 북구 광주제일고 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전범국가로서 아시아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신·물질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목포대 '제21회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개최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최근 열흘간 캐나다, 일본,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5개국 학술교류 협정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제21회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목포대 제공>

조선대 '호남권 최고 사립대' 명성 되찾아

2019 CWUR 세계대학순위 호남권 사립대 중 1위

조선대학교가 비영리 교육단체 CWUR(세계대학랭킹센터)이 선정한 '2019 CWUR 세계대학순위' 평가에서 호남권 사립대학 중 1위에 올랐다.

CWUR 세계대학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비영리 교육단체인 세계대학랭킹센터(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CWUR)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순위다. 조선대는 지난해 CWUR 세계대학순위 밖에 있었지만, 올해 순위에서 재진입했다.

조선대는 올해 전세계 1193위를 기록했으며, 호남권 사립대 중 1위다. 국내 전체 대학교 중에서는 40번째에 위치해 있다.

CWUR 세계대학순위 평가지표는 교육수준, 교수수준, 논문실적, 우수논문, 논문영향력, 논문인용도 등 7개다.

교육 수준은 국제상(상급/매달 등 포함)을 수상한 동문 수, 교수 수준은 국제상을 수상한 교수(교원/연구자) 수, 동문 취업은 주요 기업의 CEO(최고경영자)가 된 동문 수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논문 실적은 전체 발간 논문 수를, 논문 영향력은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우수 논문의 경우 일류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를, 논문 인용도는 인용횟수가 많은 논문 수 등을 평가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생들 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피켓요원 활약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2019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개최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개·폐회식 참가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항공서비스학과 25명의 학생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지난 11일 2019광주FINA세계마스터즈대회 개최식에서도 84개 참가국의 피켓요원으로 활약해 박수를 받았다.

개회식에서 '물의 진동' (Playing

Water)이라는 주제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겨 있는 세레모니가 끝난 후 광주여대 피켓요원과 함께 84개 참가국 국기가 입장하며 대회 시작을 알리는 국제수영연맹(FINA)기가 게양됐다.

광주여대 피켓요원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전문 교육과 종합훈련 및 현장리허설을

거쳤으며, 성황리에 폐막한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식 무대에 오른데 이어 이번 마스터즈대회 개최식 또한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평이다.

이들은 오는 18일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될 마스터즈대회 폐회식을 끝으로 그간의 임무를 마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고등학생 과학탐구교실

광주시창의융합교육원 2학년 학생 400명 대상

광주시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광주지역 고교 2학년생 4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과학탐구교실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전자 재조합', 'DNA 전기영동', '원생생물의 다양성 이해'를 비롯해 '생활속의 운동량과 충격량', '정전기'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험하기 힘든 실험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시장의용합교육원은 오는 17~18일(초등학생)과 24~25일(중학생)에도 메가트로닉스를 주제로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공휴일에도 학습실 개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포함해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을 하반기 공휴일에도 학습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평화와 감동 재현을 주제로 광주통일관 주관 '4·27 남북정상회담 실사모형(디오라마) 기획전'도 오는 9월 11일까지 열 계획이다.

회관 내 도서관과 학습실은 평일과 토요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개방하고,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 지역사회 공헌도 '학점' 준다

지역문제·기업애로 해결

봉사점수 학점 환산

전남대학교가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받은 봉사활동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생활과 사회봉사' 과목을 2학기부터 운영한다.

전남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단(단장 김재국 신소재공학부 교수)은 학생들이 유관기관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팀원을 모아 직접 해결하고, 이에 대해 봉사활동 90시간을 받으면, 이를 3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지역사회공헌형 교과목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주도형 산학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교과과정이기도 하다. 과목은 영도 LINC+사업단 한중훈 교수(부단장)가 직접 맡기로 했다.

특히 전남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의 애로사항 해결방법 등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동사업으로 연계해 지역사회혁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재국 단장은 "지역사회혁신을 위해 LINC+사업단이 교과목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대학생의 역량을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LINC+사업단은 대동문 화재단, 세계청년축제 등 2건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학생이 직접 시행하는 소셜 아이디어랩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부터 본격적인 리빙랩 자유/지정공모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학생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투자!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선규 010-3605-5000

투
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 (주)오천경매.010-3605-5000